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에 파견되어 현재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렴수기를 모집하는 공지를 보다가 처음에는 저 같은 임시직이 무엇을 하겠나 싶어서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청렴이라는 가치에 정규직이나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잠시 동안의 파견근무라도 제 인생의 한 획이며, 동시에 연구재단에서 근무하는 영광과 추억을 생각해 보면, 재단에서 근무했던 저의 경험이 청렴을 추구하는 재단의 이상에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렴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막상 청렴수기를 쓰려니 청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 국어사전의 힘을 빌립니다.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그동안 저에게 청렴은 단순히 재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는데,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다는 부분에서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탐심은 객관적인 물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은 과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떠오르는 저만의 해답은 크게 정보와 공정성이었습니다.

첫째는 정보입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핸드폰의 보급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에, 귀한 고급 정보가 화폐로 대표되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연구재단에서 다루는 정보의 가치는 단순히 연구개발비 그 자체 금액의 규모를 증가하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보가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함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책임감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연구재단에 파견왔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연락이 뜸하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의 학력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재단에는 연구자정보시스템(KRI)이라고 있다던데, 당신이 맘만 먹으면 검색할 수 있지 않느냐, 재단으로 파견간 김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 하며 은근히 저를 시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청탁에 순응하면

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게 되겠지, 나름 보이지 않는 포인트를 썩게 되겠지,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해도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알려준다고 무슨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도 않을 텐데, 나도 이 기회에 인맥 쌓아야지...

하지만 ‘저에겐 검색 권한이 없다’ 는 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였습니다. 솔직히 ‘청렴’ 이나 ‘깨끗’ 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검색의 대상이 될 그 연구자의 입장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구자는 연구자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등록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자세히 등록하였을수록 흔히 말하듯 신상정보를 더욱 더 잘 털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만일 지금 제가 그 정보를 가볍게 알려주게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퍼지고 커져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피해가 당사자를 무겁게 괴롭히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 국가의, 연구재단의 정보시스템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저 역시 언제나 그 연구자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화청탁을 거절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지인에게서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연구재단의 공모 과제에 지원하였는데, 과제 선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원 소속기관에서 과제책임자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전화하신 분의 심정을 잘 이해하였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로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아마도 알아보려면 어떻게든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되냐는 비아냥의 미끼도 이해해 달라는 웃음으로 살짝 피해갔습니다.

연구재단은 정보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재단이 중심을 벗어나는 순간 모두가 흔들립니다. 비정상적인 경로로 정보를 알려주는 행동의 밑마음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가까이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멀게는 상호 신뢰하는 안전한 관계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언젠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바랄 수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청렴의 뜻이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인데, 우리는 보통 재물을 키워드로 생각하기 쉬우나, 넓게 생각해 보면 ‘탐하는 마음’ 이 더 중요한 핵심임을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국가 연구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재단 업무의 특성과 나의 탐심과의 관계에 대하여 늘상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공정성입니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대형 예비타당성 사업의 기획분야입니다. 저의 원 소속 기관이 기획내용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연구재단에 파견나온 저의 입장은 종종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에 놓일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의 안건과 방향을 설정할 때, 회의 참여자를 섭외할 때, 회의 장소를 선정할 때, 업무의 영역과 분장을 논의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저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기대했던 원 소속기관의 직장동료가 저보고 ‘재단 사람 다 됐네’ 라며 은근히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언제 돌아와?’ 라며 험박 아닌 험박을 날립니다. 저는 축구팀의 임대선수 이야기로 저의 입장을 대변하곤 합니다. 다른 팀으로 임대된 공격수가 우연히 원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되었는데,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선수는 골을 넣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골을 넣어야지요. 그게 공격수입니다. 다만 골을 넣고는 원 소속팀을 배려하여 세레모니를 하지 않으면 되지요. 그리하여 임대된 선수는 몸값이 올라가고, 나중에 원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면 결국 원 소속팀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지금 저는 재단에서 재단 일을 공정하게 잘 하고, 원 소속기관에 돌아갔을 때 여기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를 더 잘 하면 되겠지요. 그래야 원 소속기관도 연구재단도 서로 윈-윈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연구재단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 수많은 연구기관들과 연구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어떻게 하면 연구재단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단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양하고 수많은 바램들을 공정한 과정으로 차분히 녹여내어 연구과제라는 작품으로 창조해 나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는 예타 사업에서 기획된 거액 장비들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로부터 전달받은 원자력분야 장비 검토 가능 전문가 명단의 절반이 저의 원 소속기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기관 전문가들에게 장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원 기관도 좀 배려하고 해야 나중에 복귀해서도 당신도 좋은 대접 받는 거 아니냐고. 제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의 객관적인 검토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없으면 그 연구계획은 부실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배려만 받다보니 지금 이렇게 나약해 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정해야,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그리하여 현재의

위치를 절실하게 파악해야 원 기관이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결국 국가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파견명령이 끝나면 저는 원 소속기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물으면 요리사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보라는 소중한 음식재료를 공정성이라는 레시피로 요리하는 요리사. 제가 담당한 영역은 정말 작은 범위였지만, 재단의 청렴 원칙은 업무 영역의 범위나 깊이에 상관없이, 근무기간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지켜나아가야 할 소중한 철학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연구재단을 떠난 이후에 제가 다시 연구재단을 상대할 때의 저의 모습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청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아마 그 때의 저는 연구재단의 청렴함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여러 문구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청렴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단을 떠나는 그 날까지 제가 연구재단의 이름으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의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청렴 신뢰받는 연구재단”